

最初의 博士輩 出 汗 海

大德에 2000명 수용할 시설 계획

국제 수준급의 우수한 科學院生

韓國科學院(院長 趙淳卓)은 그동안 산업계에
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
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기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바라는 수준이상의 것을
무난히 소화시켜 과학원 졸업생들의 인기는 날
로 높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해도
과학원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 인재양성에 주력해 왔을 뿐 만 아니라 이
들을 배출할 여건 조성에 어느해 보다도 主力한
한해였다.

특히 과학원의 금년도에 가장 큰 수확은 과학
원 開設이래 처음으로 科學院博士를 탄생시킨것
과학원은 그동안 석사과정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75년부터 대학원 본연의 업무인 박사과정을 개설
하여 올해 첫번째로 工學博士 두명을 배출한 것
이다.

『첫번째 배출이니 만큼 國際水準에 맞춰 論文
의 質이라든가 배출시기등에 상당히 신경을 많
이 썼읍니다』 科學院 金英傑開發擔當副院長은
특히 이번에 통과된 논문들은 國際的인 學術雜
誌나 國際學術會議에 發表되어 그 우수성을 인
정받은 論文들이므로 상당히 우수한 논문이었다
고 말한다. 과학원이 첫번째 배출시기를 금년에
잡은 것은 고급두뇌양성이 어느정도 본 체도에
올랐고 사회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금년을 계기로 앞으로 이 숫자
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과학원 박사들
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크다.

특히 금년에는 교수유치가 가장 활발했던 해
였다. 금년 한햇동안 14명의 교원이 확보되어
電算分野에서 電算斷層影像技術(computed To-
mography)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창희박사를

비롯해서 신상영박사와 化工분야의 임선기 이원
규박사, 産業工學에서 안병훈, 노공균박사, 化
學의 오동열, 정경훈박사, 材料工學의 김영길박
사, 그리고 機械工學분야에 장근석, 엄윤용, 정
명균, 조형석, 양동열박사등이 새로 부임했는데
이 가운데 양동열박사는 이번에 과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획득한 주인공으로 그대로 모교에 남아
후진 양성에 힘쓰게 되었다. 그리고 같이 학위를
획득한 양창주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활동
중이다.

과학원은 이외에도 5명의 교원유치가 확정되
었으며 교섭중인 사람이 7~8명에 이른다고 한
다.

『교수들에게는 최소한도 우수한 學生과 연구
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 연구분위기등이 구비되
어야 의욕이 생기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서 과
학원만큼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곳도 없다고 봅
니다』 金부원장은 외국에서 여러해 외국학생들
을 가르쳐왔지만 과학원 학생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강조한다. 그
리고 과학원이 다른 학교나 기관에 비해 연구할
시간이라든가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도의 연구비
가 지급되어 어느정도 조건이 갖춰졌으므로 교원
유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과학원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교원유
치 계획으로 한과마다 적어도 6~7명 아니면 8
~9명 정도까지 교수진이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는 어느 정도 critical mass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독불장군식의 연구태도로
는 곤란하다. 타분야의 연구활동이나 교수들과
도 상호의견 교환등이 있어야 바람직한 연구결

과가 나올 수 있다.

『갑작스러운 규모팽창으로 교수 상호간의 人和問題, 늘어나는 학생수에 미치지 못하는 교수의 확보문제로 야기되는 교수와 학생간의 서먹한 관계 등 內的인 조화가 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비대해지는 과학원의 현실』을 아쉬워하는 김부원장은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예정된 계획이 빨리빨리 원활하게 진행되어 하루빨리 안정된 분위기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원확보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늘어나는 학생수에 대비한 시설확장 및 보완문제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학원에서는 大德 전문연구단지에 2,000여명을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는 Masterplan이 내년도에는 구체화되어 83년까지는 工科계통이 완전히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도입완료될 IBRD공공차관 1,200만불로 새로 신설될 과정에 대한 필요한 시설설치, 낡은 기자재 대체 등 시설확충에 유효적절히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研究體制가 어느정도 확립되어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英傑부원장은 『우리의 여건으로봐서 이 정도의 연구체제 확립은 상당히 진보한일』이라고 강조한다.

과학원은 政府의 긴급한 요청으로 내년부터 宇宙航空工學科를 신설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선도적역활을 담당할 기술인력을 배출케되며 80년부터는 原子力工學科를 신설해서 원자력발전소가동에 따른 원자력기술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공학과 新設은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해서 항공산업 육성책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항공기생산을 위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게되는데 과학원측에서는 이미 金英傑부원장이 미국에가서 科新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한 바 있으며 우선은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가르치다가 장차 우리 교수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한개의 전공과정을 신설하는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시급히 요청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리한 일도 감행해야한다. 金英傑부원장은 과학원수준에서 무리없이 해낼수있는 계획만이 수립되는 풍토를 아쉬워한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수준에 도달하려면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理工系출신 과학기술인력이 10만명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 선 외국수준에 비추어 현재 우리가 확보한 인력은 1만명. 앞으로 12~3년 동안 9만명이 더 필요하므로 1년에 9,000여명씩은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불과 4년전만해도 과학원졸업생들을 소화시키는 문제가 큰 격정거리였으나 지금은 어떤분야에서는 한명의 졸업생에 대해 7~8군데의 기업체에서 뽑아갈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과학원이 계획한대로 학생수를 늘려도 계속 부족한 상태는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金英傑부원장은 인력수급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한정된 시설로 늘어나는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학원의 당면과 제임을 역설한다.

앞으로 3~4년이 과학원으로서의 과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김영걸부원장은 『과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문제, 차관을 따오기는 했으나 유효적절하게 투자하는 문제, 새로운 전공과정 신설에 따른 준비와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 등』이 과학원이 당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과학원은 앞으로 박사학위과정에 따른 시설및 여건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며 일반대학원에서 하지 않거나 못하는것을 찾아서 해내는 것이 과학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므로 과학원이 선도적역활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돌격대 역할을 할것을 다짐했다.

『과학원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1979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두뇌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한다.